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1-13절>**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적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그의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 귀에 들렸습니다. 아마 일에 실수가 있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횡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냐?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여라. 문제가 있다면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됐으니 이제 어떡하지? 막노동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 때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되겠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거야. 그러면 후에 그들이 나를 몰라라 하지 않겠지.”*

이어 주인에게 기름 백 말 빚진 자를 불러다 말합니다. “여기 증서에 오십이라 쓰시오.” 밀 백 석 빚진 자도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 증서에 팔십이라 쓰시오.” 주인 허락도 없이 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며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백 말은 800갤론에 해당하는 기름으로써, 15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는 기름이며, 보통 일꾼이 3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액의 빚을 자기 임의로 절반으로 줄여준 것입니다. 또한 밀 백 석은 150명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식량으로써, 100에이커의 농토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이며, 보통 일꾼이 7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액의 빚을 자기 맘대로 20% 깍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건 이 주인의 반응입니다.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며 칭찬합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오히려 책망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자기 살자고 주인 허락도 없이 이런 일 벌인 자를 칭찬하다니,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럼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재물을 늘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부자 주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그분이 지으신 사람, 혹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 혹은 생명입니다. 본문에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려 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만 보자면, 그는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그가 칭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가 주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주인에게 너무 큰 빚을 져서 갚을 엄두를 못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주인 앞에 서는 게 두려워 마음만 졸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그 줄여진 빚 때문에 그들에 대한 주인의 호의를 확인하고, 다시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구원받을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그것이 이 청지기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 속 청지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재물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 당장에 재물을 손해보더라도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지혜로운 일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물질에 집착하며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세속적인 재물’, ‘부정직한 재물’로도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이 세상의 재물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주인으로 삼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쓰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돈이란 놈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별볼일 없는 녀석을 너무 대우해주지 말고, 다만 그것을 귀하디 귀한 사람 얻는 일에 아낌없이 써라!

이 말씀과 관련해 두 가지를 더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으로 상대를 휘어잡아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떠밀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던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익를 생각하며 그리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썼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 친구들의 환영과 영접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은 그분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 주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주위 사람들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이웃에게, 나에게 하등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눅14:12-14), 오히려 더 마음을 쓰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비단 물질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빚진 자’들을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인에게 기름 백 말, 밀 백 석 빚진 자들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그 앞에 나아갈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다시 앞에 청지기의 상황으로 돌아가봅니다. 본문에 청지기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의 양을 자기 임의로 줄여주었습니다. 직장을 짤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다시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빚진 자들을 닥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빚을 전부 다 갚으라면서 무자비하게 독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다른 것이었고, 주인은 그 일에 책망은커녕 칭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에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의 양을 줄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가?

지난 주간에 청년들과 함께 기독교 사상가 C. 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중에 ‘용서’에 관한 챕터를 함께 읽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이 글에서 루이스는 ‘용서’의 실천을 이웃 사랑의 실천과 연결지어 고찰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원수 사랑’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그에게 호감을 느끼라’든가 ‘그에게서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그렇지 않은 듯 여기라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루이스는 아주 인상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 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 마디도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어 그의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요,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거나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 때 ‘정말 잘됐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김이 샌다는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한으로 취급하는 더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 합니까? 만약 두번째 경우라면 종국에는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검은 것이 좀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회색도 검게 보고 싶어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흰색까지 검게 보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 – 하나님과 친구들과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 을 어떻게든지 악하게 보려고 고집하게 될 것이며, 그 짓을 영영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증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잘못도 벌하지 말라는 뜻인가?

루이스의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며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보통 관점의 차이는 무어란 말인가? 거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즉 영혼의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작은 흔적이나 꼬인 자국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하거나 미워하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벌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적의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다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토록 그것을 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도 품도록 –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든 다른 세상에서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 애써야 합니다. …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자아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또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나누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관점이므로, 굳이 이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미워하거나 미워하기를 즐기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쳐내려 노력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그 사람이 영영 그 상태로 있지 않고 치유되어 다시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본문에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에게 깍아 주었던 기름 오십 말, 밀 이십 석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것이 그 빚진 자들과 주인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영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그 관계에 작은 회복의 단초나마 제공할 수 있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란 일차적으로 재물, 즉 돈을 말하겠지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워하길 즐기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이 ‘지극히 작은 것’ 안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사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후의 많은 것들을 미리 말해주고 또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보다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더라도 역시 충성되게 감당하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그렇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물질관, 바른 인간관,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그 더 좋고 참된 것도 맡기셔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재물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리라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재물, 내게 주어진 권한을 충성되게 사용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예비된 ‘자신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음을 꼭 명심하라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